

## 미국 장로교 제 51 차 총회에 대한 서기의 요약 및 속고

###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들

총회 보고서에서 제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은 교회로서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축복들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우리 교회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들 중의 하나는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 교단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이 성장의 특징들 중에는 5,411 명의 유아 세례, 4,859 명의 어린이 신앙 고백(입교), 4,641 명의 성인 신앙 고백(성인 세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축복들 외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들과 목사와 선교사들을 더하심으로 총 헌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십억 불의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는 성경적이고 고백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지상 명령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sup>1</sup>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그들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도 논쟁이 있을 만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의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화적 사조에 대항하며 또한 예수가 필요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용하시는 교회로서 정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들을 섬김

미국 장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도록 돕기 위해 각 노회를 대표하여 오신 총대들은 모두 2,113 명으로 (1,459 강도 장로, 654 치리 장로) 우리 역사 상 네번째로 큰 총회를 이루었습니다. 최초로 네 노회 - 블루리지, 제임스 리버, 한인 수도 및 타이드워터 노회 - 가 주관한 총회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토론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예배하면서 이 우선순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인 부형들이 총회를 위하여 매일 아침 기도회를 인도한 것과, 아울러 목요일 저녁에 120 명의 성가대를 포함한 뜨거운 예배를 인도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개회 저녁에 우리는 우리 구주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일에 오래 동안 신실하게 수고한 세 분을 축하했습니다: 존 로버트슨 목사님은 25 년 동안 미국 장로교의 경영 책임자로 섬기셨고, 릭 스프링거 장로님은 지난 40 년 중 38 년 동안 회의장 서기들의 의장으로 섬기셨으며, 래리 로프 목사님은 50 년 동안 총회 올개니스트로 섬기셨습니다.

총회는 모임을 인도할 총회장으로 남동부 앨러배마 노회의 스티브 다울링 장로님을 선출했습니다. 테크 회사의 임원으로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룬 경험과 27년 간의 해병대 복무를 통해 다울링 장로님은 총회를 이끌고 지도할 준비를 잘 갖춘 분입니다. 그는 총회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도록 섬길 목적으로 의장직에 임하셨고, 총회의 업무를 잘 이끄셔서

---

<sup>1</sup> 제 1 차 총회가 채택한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하루 전 날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폐회함으로써 이 목적을 은혜롭고 기지있고 권위있게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상임 위원회와 기관들이 각각의 총대 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커버넌트 대학**과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둘 다 등록인원 수가 증가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제네바 혜택 재단**이 섬기는 교회의 수는 미국장로교 교단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 위원회(RUF)**는 미국안과 전 세계에서 매주 2 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사역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캠퍼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 개척자, 목사 및 교단의 직원 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195 명이 넘는 캠퍼스 사역자 출신들과 함께 미국 장로교 안의 리더십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원선교위원회를 거쳐간 수천 명 이상의 교회의 등록교인 및 리더들과 함께). **국내 선교 위원회(MNA)**는 2030 년까지 천 개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위원회(MTW)**는 2 년 사역 기한을 시작하는 선교사들과 인턴의 수가 지난 5 년 내 최고를 기록하며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해를 보고하였습니다. **리지 헤이븐 수양관**은 2023 년에 14,000 명의 참석자들을 섬겼고, 새로운 탐험 프로젝트의 출범을 선언하였으며, 그 사역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브레버드 캠퍼스에 새로운 시설을 열었음을 보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재단(PCAF)**은 지난 해에 미국 장로교의 교회들과 기관들에게 2 천 3 백 만 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5 천 6 백만 불을 넘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제자 사역 위원회(CDM)**는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과 컨퍼런스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행정 위원회(AC)**는 교회 규칙(BCO)의 스페인어 번역이 완성된 것, 포르투갈어 번역의 진척, 그리고 한국어 번역의 업데이트 작업과, 교단의 50 주년을 축하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와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의 우선순위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불드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봅니다.

### **교회 규칙(BCO)과 총회 운영 세칙에 대한 수정안들**

지난 해 총회가 노회들에게 보낸 교회 규칙(BCO)에 대한 세 가지 수정안은 모두 금년 총회의 고려를 위해 필요한 노회의 3 분의 2 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중 두 수정안은 노회들로부터 거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어서 반대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규칙(BCO) 8-2 와 9-3** 은 직분자들이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기준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 규칙(BCO) 38-1** 에서 치리회가 (범죄자의) 자백을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규칙(BCO) 7-3** 의 수정안은 지 교회에서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호칭에 관한 것으로 집사의 기능과 호칭에 대한 관습이 다른 몇몇 노회들 안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한어 노회들 안의 염려를 포함한 상당한 토의 끝에 이 수정안은 한인들의 염려에 대한 큰 인식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총회 운영 세칙(RAO)에 대한 네 개의 수정안은 엄청난 지지와 함께 승인되었습니다. **총운세 16 장**에 대한 두 수정안은 노회록 검토 위원회(RPR)로부터 온 것으로 노회록에 전입과 안수 고시를 기록하는 요건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개는 노회들이

상정한 현의안들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현의안 7**은 상임 위원회나 기관의 성격이나 책임과 관련된 총운세 수정안들은 현의 위원회(OC)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위원회나 기관에 위탁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위원회나 기관은 총회에 그 수정안에 대한 추천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현의 위원회에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현의안 14**는 총운세 4-21의 수정안으로 커버넌트 대학교와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등록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현의안들에 대한 조치들

노회의 경계에 관한 현의안들과 총회 운영 세칙 수정안들 외에, 8개의 현의안은 권징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었습니다. 5개의 현의안은 교회 직분자들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는 노회의 책임에 대한 교회 규칙(BCO)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는 **목사의 전입**을 다루는 것이었고, 한 개는 **강도 장로의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강도 장로의 돌봄(돌보는 것)**을 노회가 권한을 갖고 조치해야 할 책임에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규칙(BCO) 12-5에 있는 **당회의 의무**에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책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사하게 또 다른 하나는 **위원회와 기관들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BCO 14). 두 현의안은 목회의 소명(관계)을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두 개는 **교회 규칙(BCO) 53 (말씀 선포)**의 최소한 일부분에 **완전한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성별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교회 규칙(BCO) 7의 수정을 원했고, 다른 하나는 제 50차 총회에 올린 현의안 28에 대한 응답으로 위원회의 서한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현의안은 노회들에 의해 기각되었다가 당회들이 직접 상정하였습니다. 하나는 **Jesus Calling**이라는 서적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의안 전체 목록은 총회 웹사이트(<https://pcaga.org/resources/#overtures>)에 올려져 있습니다. 총회의 처리 사항에 대한 일일 보고는 <https://byfaithonlin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자 주: 두 가지 모두 CKC 단체 대화방에 올린 바 있으니 노회 서기들께서는 원하는 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의 위원회에 위탁된 29개의 현의안들 중에 22개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35개의 현의안 중에 단 6개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만 토론이 있었고 단 한 개의 소수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총회의 하나 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의안 1**은 총회가 교회 규칙(BCO) 35-1와 35-8을 수정하여 교회 치리회에서 증인으로서 무신론자들의 증언을 허락하려는 안으로서, 부결되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증언을 교회 치리회들이 허락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우리 치리회들이 그 앞에 모든 길을 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표결의 차이는 950-750-34였습니다.

**현의안 3**은 교회 규칙(BCO) 53 “말씀 선포”에 **완전한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선포를 수호하고자 하는 토론을 한 뒤에, 총회는 교회 규칙(BCO)에 이미 존재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헌법적 표현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현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857-906-13).

현의안 13 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으며, 제 50 차 총회의 위원회가 기록한 대로 **미성년자들의 성별 재지정(성전환 수술)에 대한 서신**이 성경적으로 신실함을 칭찬하되, 행정관서에 그 서한을 보낼지의 결정과 방법은 각 치리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의안 17 은 모든 직분자들의 **신원 조회를 요구**하도록 교회 규칙(BCO)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총회는 지방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하지 않기로 하되, 그러한 정책의 지혜를 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교회 규칙(BCO)을 수정하지 않지만 이번 총회가 모든 노회와 당회들로 하여금 모든 직분의 후보자들의 신원 조회를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면하도록 원 현의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현의안 26 은 총회가 교회 치리회 앞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서,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노회들에게 보내질 새로운 표현은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분한 도움을 보장하고 지 교회 치리회를 능가하는 교회법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합니다.

현의안 33 은 이제는 고인이 된 세계 선교 위원회의 선교사였던 새라 영의 저서 **Jesus Calling** 을 조사하는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제자 사역 위원회(CDM)와 세계 선교 위원회(MTW)로 하여금 이 서적과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들을 제 52 차 총회에 제출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규칙(BCO)의 수정을 요구하는 네 개의 현의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의안 2, 21, 26 과 27). 두 개는 전입 고시에 관한 교회 규칙(BCO) 13-6 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기한 현의안 26 은 교회 규칙(BCO) 32-19 를 수정하여 교회 치리회 앞에 피고인의 변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 규칙(BCO) 43-1 을 수정하여 재판 절차에 대한 소원을 (재판 중에라도) 허락하되, 관련된 재판 절차의 최종 결정이 난 후에 (소원에 대해) 판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기타 결정들

2023 년도 제 50 차 총회는 교회 규칙(BCO) 40-5 의 조항에 따른 조치로서 메트로 뉴욕 노회가 그 경계 안에 있는 교회가 한 여성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SJC)에 출석하도록 소환하였습니다. 그 절차의 일환으로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는 그 위법 사항을 해결할 적절한 조치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였고, 또한 그 노회가 이에 대한 조치들을 노회록 검토 위원회(RPR)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금년 봄 회의에서는 노회록 검토 위원회는 메트로 뉴욕 노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총회는 이를 승인하여 해당 노회가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위해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에 다시 출석하도록 소환하였습니다.

다른 두 노회도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는데, 이는 교회 규칙(BCO) 40-5 의 조항 아래 헌법적 염려가 있는 미결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노회는 수년 간 남자들의 명시된 견해 차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것 혹은 검토를 위해 요구된

이전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과 이전 검토들에 대한 응답을 못한 것 때문에 소환되었습니다. 다른 노회는 한 회중을 해산하고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출두하여 설명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 미국 장로교의 전망

지난 해 제 50 차 총회 때에 우리는 우리가 친애하는 서약들을 한 설립자들을 기렸습니다. 총회 전 주에 우리 나라는 80 년 전 노르망디에서 그 서약들을 표현할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기렸습니다. 두 경우 모두 희생을 통한 배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의무감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제 2 차 대전) 벌지 전투에 단 2 주의 훈련을 받은 후에 “기저기 여단”(the diaper brigade)의 대원으로 참전했던 제 장인 어른을 생각합니다. 그는 부대원 중 살아남은 소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믿은 그는 후에 장로교의 장로가 되셨고 자기 교회를 비성경적인 자유주의에서 우리 교단으로 이끄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저는 자유와 신앙 안에서 사는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위탁하신 것들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축복들을 섬길 의무가 있음을 압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신앙은 우리 안에 개인과 정파의 그것들에 우선하는 현재의 그리스도의 몸의 우선순위들에 대한 의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차이점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는 순전한 소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사명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려는 우리 설립자들의 노력을 더욱 진보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해에 미국 장로교의 회원과 재정이 건강하게 증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후기의 성장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길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미국 장로교에 특별한 축복인 성장을 위해 섬기는 일에 신실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장로교에 속한 이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브라이언 채플, 미국 장로교 서기